

업무과중
재정난
교계 무관심

군법사 '三重苦'

현대불교 창간 3주년 '군포교 활성화' 설문

"군법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재정난,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본사가 창간 3주년 특별기획으로 9월 한달 동안 전국 군법사 및 예비역군법사 92명을 대상으로 교계최초로 실시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24·25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법사들은 월평균 15회의 법회를 병행하고 13회의 상담, 5회

의 위문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군법사 1인당 평균 3개의 법단(10월 1일 현재 군법사는 117명, 군법단은 305동)과 1천3백 70여명의 군법자(군법자 16만1천여명)를 관할·관리하며 매일 1.1회의 법회를 병행하고 있는 셈이다.

군법사들은 또 포교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관련, 거의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1/3에 이르는 군법사들이 법회비용을 개인부담(33.1%)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포교위원의 올해 군승단 지원예산 4억4천만원 가운데 법당건립비 4억원을 제외한 4천만원만이 군승단 운영비용으로 쓰여 사실상 일선 군법단에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군법사들은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찰에 한정돼 있으며(60.2%), 9.1%의 응답자들은 원래만 지니고 있을 뿐 군포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혀 교계전반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군법사들은 삼중고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69.3%), 위대대의 군승사관선발학교 지정(61.3%), 제도적으로는 군승특별교구 설치(63.6%)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성운 기자)

대선 공명선거 당부 조계종, 본사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2일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는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했다. 총무원장은 공문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나친 반대를 삼가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이 작성한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글'에는 공정한 종교정책의 수립과 농지법 개정, 국토개발공원의 입장료 폐지, 예산안 정략적 협조사항과 평화적 통일 정책, 도덕성 회복, 경제대체, 환경보존 등 13건의 정책 건의사항이 담겼다.

"황룡사지 복원관심"

이희창대표,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일 신한국당 이희창후보의 예방을 받고 미리 준비한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전했다. 김대호 감식원위원장 등 신한국당위원과 당직자 20여명과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월주스님을 예방한 이후보는 "경주 황룡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복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월주스님은 "정부가 두 사지의 복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불교계가 복원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지사 본암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8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촉구 결기대회를 열어 '사찰 환경 보존서원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도 벌였다.

직지사·동화사·은혜사 등 본사 '입장료 폐지' 결기대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는 조계종 교구본사들의 결기대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8일 직지사(주지 녹원)는 말사 주지 및 신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결기대회를 갖고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 토지재의 △공공임대료 폐지 △총무원장 스님의 성명서 및 언론 회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모임의 결의문 지지동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기대회에서 사찰 환경 수호를 다짐하는

'환경보존 서원문'도 채택한 직지사는 1일부터 발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에 1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앞서 7일에는 불국사(주지 설조)가 말사 주지 및 신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9월 22일 발표된 총무원장 스님의 대정부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 본사들의 결기대회는 10일 동화사 11일 은혜사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특정종교 강요 징계 국방부 '군중 훈령' 제정

국방부는 9일 '군중업무 훈령'을 제정, 각 군에 시달렸다. 군중업무의 기본방향을 담은 훈령은 △특정종교 강요자의 징계 조치 △인격지도교육 및 초빙강연회 때 선·포교 금지 등 모두 9장 33조로 구성됐다. 훈령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육군복수정학교와 논산훈련소 해방사건 이후 종교편향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훈령 제정을 추진, 조계종과 군승단 등 불교계와 개신교 천주교회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관련기사 2면)

지난 백중날 경주 불국사에 갔었다. 불국사에선 보름달 담음이 일곱번에 하는 날이란다. 그날따라 하늘에 달이 그 환한 모습을 애교있게 가리면서 자태를 보일듯 말듯 나타냈다. 우리 등불을 들고 석가탑 다보탑 주위를 돌고 또 돌았다.

내게 백중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이면 어머니의 엄복소리와 향(香) 냄새를 맡으면서 어릴땐이 새벽을 느끼곤 했다.

어머니! 내게 있어서 어머니는 내 모든것이었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없는 지금도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한국적 현대무용을 고집하면서 불교가 우리 문화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불교적 소재의 많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특별인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그 열성적인 불교에 대한 철학이 내게 잠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들만 있는 우리집이었기에 어머니는 나와 함께 살았으며, 10년간 합심증을 얻었다. 늘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고 속소리를 느끼고 내방으로 건너가서 잔을 잡고 아침이면 향냄새 엄복소리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런 어머니가 82년 여름 내가 LA 공연을 하고



김복희

어머니 안계신 지금...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 "놀라지 마라. 어머니가 운명하셨다."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인지...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써늘하게 간해있었고 난 슬픔보다는 장례 절차에 정신이 없었다.

모두 다 아버님과 함께 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장으로 결정을 했다.

세월이 지날수록 '희아 나는 죽어서 이산에 안 올란다. 꼭 화장해라' 하였던 말을 물어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산에 계신다.

임종도 못하고 원하셨던 화장도 못해드린 불효가 늘 속케치랄 남아있다.

돌아가신 그해 10월 나는 어머니를 위해 '호국'이란 작품을 발표했다. 그것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한국적 현대무용을 고집하고 또 계속할 것이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

(한양대 교수·현대무용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축하기도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창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공)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도포를 드립니다.

- 행사 안내**
-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 △회 황: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학순)
 - △동참비: 5천원
 - △입 정
 - 입제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지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걸옷
 -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사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필버스 대기.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시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여이 됩니다. *국민은행은 불소 살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원력이 귀하게 하였습니다.

창간 3주년 28면 특집 발행	빅성배교수 3형제 정담	3면
	타종교 예술인 구도작품	6면
	유림에 부는 불교열풍	8면
	거조의 5백나한	9면
	대선후보 '종교·문화관'	17면
	北 불교문화재 회보	21면
	해외불교대학	22면
	거사림회	23면
	군포교 설문	24·25면
	'현대불교' 3년	27면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심 이북은 각종 중전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성능 단위 요소기에서 본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현지의 오저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